

중원에서 마주친 野 3주자 ‘총청 대격돌’

문재인 세종시 방문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 건설”

안철수 대전서 4차산업혁명 특강 등 2박3일 강행군

안희정 “노동자가 미래 주도”…충북 찾아 세다지기

지난 주말과 휴일 아권의 심장부 호남에서 한바탕 불었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에는 중원 충청에서 격돌했다.

충청지역은 호남에 이은 민주당의 2차 경선지로, 초반부 승기를 가를 수 있다는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특히 각종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으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로 표심의 향배가 주목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가 안 지사의 ‘안방’이기도 한 충청에 출격하고, 흙그라운드에서 아직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밀리는 안 지사는 ‘충청 대망론’을 띄우며 맹추

격전에 나선 모양새다.

문 전 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문단 ‘10년의 힘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뒤 오후 세종시로 이동, 정부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경선 최대 경쟁자인 안 지사의 근거지인 충청지역을 일주일 만에 재방문하는 것으로 안 지사를 견제하는 동시에 대선론을 확산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기념식에서 “세종시에는 국가균형발전이란 참여정부의 혼이 담겨있다. 그 원대한 꿈이 꽃을 피우지 못했다”면서 “담대한 분권으로 입법권·행정권·재정권·인사권·복지자치권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에 이양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에서 더 나아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 개헌 과제 속에 지방분권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지역 방문을 마지막으로 1박2일의 호남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후 대전으로 이동했다.

그는 대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저녁은 대전지식인네트워크와 함께했다. 이어 15일 충북을 거쳐 16일 안 지사의 ‘근무지’인 충남 홍성의 충남도청에서 지역기간담회를 갖는다. 이어 세종시 일정을 끝으로 상경한다. ‘호남·충청 강행군’을 통해 안 지사에게 뺏긴 중도표를 회복, ‘문재인 대 안철수’ 구도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서 “박근혜 게이트를 거치면서 보수진영은 (대선후보 지지율에) 아무

리 많아도 20~25%를 넘지 못할 것”이라며 “나머지 75~80%로 정권교체의 자격이 있는 국민의당과 민주당 후보 간 양강 구도의 결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이날 서울에서 전국금융산업 노조 회장 이·취임식과 자차권협회 정기 총회에 참석한 뒤 15일에는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충청향우회 신년하례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또 오는 17일에는 충북을 방문한다. 정치적 중립이자 자신의 ‘베이스캠프’격인 충청에서 견고한 지지세를 다져놓음으로써 대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안 지사는 이날 이·취임식에서 축사를 통해 “전체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힘을 뭉쳐 대한민국 개혁을 위한 미래를 주도할 대담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사용자들이 만들어놓은 의제에 반대하기 위해 모이지 말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국사회의 미래개혁을 놓고 의제를 선점하자”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호남 있어야 3기 민주정부 가능”

‘文캠프 핵심 브레인’ 장흥출신 임종석 비서실장



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 실장은 14일 광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문재인 정부라기 보다는 제3기 민주정부가 될 것”이라며 “특히 호남의 지지가 없다면 제3기 민주정부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의 호남 진정성도 강조했다.

그는 “문 전 대표가 직접 호남 인사를 모시기 위해 삼고초려를 하고 있다”며 “캠프의 주도 세력은 친문이 아닌 호남”이라고도 했다. 호남 일각의 비문 정서에 대해서도 “문 전 대표의 어법에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며 “호남은 문 전 대표에게 가장 아픈 손가락과 같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호남의 적극적 지지만 이뤄진다면 문 후보는 영남과 충청, 수도권 등에서 모두 압도적 지지를 얻어 최초의 국민통합형 정부가 출범하게 될 것”이라며 “호남 민심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데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전대협 의장과, 16·17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서울시 정부부시장 등을 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DJ·盧 정책 계승”…문재인 매머드급 자문단 발족

장·차관 출신 60여명 포진

‘10년의 힘 위원회’ 본격 활동

아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자문단 ‘10년의 힘 위원회’ 출범식을 하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국정 경원이 풍부한 장·차관 출신 인사 60여명의 매머드급 자문단을 발족하면서 여론조사 우위를 바탕으로 형성된 ‘대세론’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의도가 엿난다.

문 전 대표가 차기대선으로 탄생할 정부를 ‘제3기 민주정부’라고 칭한 데서 보듯 자문단은 ‘1·2기 민주정부’인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인사로 채워졌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우선 3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사회·경제분야 인사들이 고루 참여한 것은 물론이고, 세부적으로는 경제에서 재정·금융·과학기술, 사회에서 환경·에너지·노동·안전 등 각 분야의 최고 수준 행정 경험자들이 합류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정책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인사들이 동시에 위원회를 꾸리면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모두 반영한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동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이영탁 전 국무조정실장이다. 정 전 장관의 경우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에서 잇따라 통일부 장관을 지내면서 민주정부 통일정책의 가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대선자문단 ‘10년의 힘 위원회’ 출범식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등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도적으로 집합한 인물로 꼽힌다.

공개된 명단에는 정 전 장관 외에도 이진순 전 한국개발연구원장, 조순용 전 정부수석,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 김성진 전 여성부 차관 등 국민의 정부 인사들이 5명 포함됐다.

공동위원장이던 이 전 국무조정실장은 청와대 경제비서관, 경제기획원 예산실장 등을 지낸 경제전문가로 꼽힌다. 상임고문

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윤덕홍 전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가 맡았다.

박양우 전 문화부 차관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 등 문화예술계 쟁점들에 대해 조언할 전망이다. 김세옥 전 대통령 경호실장은 청와대 경호실 개편 문제에 대해 문 전 대표의 상담 상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김진주 전 에너지연구원은장

원전 문제에 대해, 김세옥 전 대통령 경호실장은 청와대 경호실 개편 문제에 대해 문 전 대표의 상담 상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이른바 ‘신정아 사건’으로 물러난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도 이름을 올렸다. 변 전 장관과 박봉흥 전 기획예산처 장관 등은 참여정부 경제정책을 이끌던 핵심 인사들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종인 ‘빅텐트’ 되살리기?

비문계 만찬이어 오늘 김무성·정의화 연쇄 접촉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문(비문재인) 진영 인사들이 14일 대규모 만찬을 가져 관심을 모았다.

김 전 대표의 16~21일 독일 방문을 앞두고 모인 자리였지만 당내 대선 주자 경선을 앞두고 뚜렷한 구심점이 없는 비주류가 진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만찬에 참석한 의원들은 변재일, 박영선, 오세재, 이상민, 이종걸, 이연주, 김성수, 최명길 의원 등 10여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비문 진영 의원들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한 지원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만찬에는 안 지사 측 정재호 의원이 참

석해 ‘러브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비문 진영이 집단적으로 안 지사 지원에 나설 경우, ‘문 대 비문’ 구도가 선명해질 수 있지만 현실화 여부는 분명치 않다. 일부 비문 진영 인사들이 이미 문재인 대세론에 줄을 서는 등 단일대오 형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김 전 대표는 15일에는 정치권의 대표적인 제3기대론자인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조찬 회동을 갖는데 이어 ‘당내 공정경쟁 요구 성명’을 냈던 3선 이상 의원들과 만찬을 하는 등 ‘연쇄 접촉’을 이어간다.

이에 따라 독립 방문 이후, 김 전 대표의 거취가 당내 경선 구도는 물론 전체 대선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입점 매 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70㎡ 현 신발대리점 입점 매 20억원 (보5천, 월9백만 포함)
- 월계동 2층 상가점포 195㎡ 현 펄매 입점 매 5억5천 (보3천, 월240만 포함)
- 월계동 3층 상가점포 500㎡ 매 8억5천 (학원, 독서실, 헬스클럽 적합)
- 선암동 1층 상가점포 102㎡ 매 5억원(조정가)
- 나주 혁신도시 1층 상가점포 123㎡ 매 9억4천(조정가)
- 산정동 4층 상가건물 1,000㎡ 매 24억원(보1억6천, 월1,100만 포함)
- 수원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원(1층 약국입점)

상가주택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1500㎡ 매 13억5천 (보8천, 월524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480㎡ 매 9억8천 (보6천5백, 월400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290㎡ 건462㎡ 매 10억3천 (보4천4백, 월400만 포함)
- 신가동 3층 원룸건물 대300㎡ 건441㎡ 매8억원 (보3억2천, 월115만 포함)
- 상기 외 다수 물건 보유. 상담환영

토 지

- 화정동 대지 967㎡ 매 35억원
- 화정동 대지 980㎡ 매 49억원
- 담양군 남면 학선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고려수지침을 연구하시면 평생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통 서금요법·고려수지침 강좌

정통 수지침은 고려수지침으로 1975년에 유태우 박사가 처음으로 개발 창시하였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고려수지침은 현재 10개 국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서금요법이란 수지침 외의 서암뜸, 기마크롬, 서암은열뜸기, 아류뜸, 금봉 등을 말합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한의약이 아니고 한국의 새로운 의학입니다. (고려수지침 강좌는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페르시아어, 히브리어, 중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자신과 가정, 단체의 평생 건강관리에 필요하고 질병을 속히 낫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부작용, 후유증, 위험이 없습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자원봉사에 좋으며 외국 이민, 귀농, 농어촌 생활에도 꼭 필요합니다.

우측의 책자를 구입하시면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여 배울 수 있고, 월간 서금요법을 발송해 드립니다.

유태우 원저 / 4×6배판 / 508면 / 정가 60,000원

유태우 원저 / 4×6배판 / 367면 / 정가 53,000원

특가 48,000원

문의처 : (02)2231-3000 ■통신구입처 : (02)2233-0841~2

■인터넷 쇼핑몰 www.seokeumshop.com (고려수지침학회중앙회를 검색하세요.)

■광주지회 062)224-5343 ■전남지회 062)525-0001 ■광주동부지회 062)227-3407 ■광주북부지회 062)512-2170

■광주남부지회 062)673-8492 ■광주광산지회 062)956-2237

※타 지방에서는 전국의 180여 지회를 이용 바랍니다.